

금기어(禁忌語)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박 정 열[†]

최 상 진

중앙대학교

본고는 금기(禁忌)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화적인 현상이며, 심층적인 한국인의 심리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는 판단 하에, 금기어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심층심리를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전체 금기어 중에서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가 가장 많았으며, 꿈, 동·식물,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금기어들 순이었다. 전체 금기어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던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들은 의식주, 가재도구, 통과례, 시간, 신체 부위, 질병, 대인관계, 남녀, 인물 등과 관련된 금기어들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히 의식주와 통과례에 관련된 금기어들이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기어의 후반 주절부 분석을 통해 과거 사람들이 인생에서 얻고자했던 가치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로써 무병장수, 풍요로운 삶, 자연과 순리에 따르는 삶, 그리고 화목한 가정과 관련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끝으로 이러한 금기가 오늘날 일반인들의 심리 속에 반영된 현상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금기어, 내용분석, 한국인, 심층심리

[†] 교신저자 : 박 정 열,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lovepassion@korea.com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은 하지 말아라’ 혹은 ‘어떤 일을 하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살아왔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하는 의문을 가끔씩은 가져 보지만, 별 다른 거부감 없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구태여 그것을 어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 반(反)하는 언행을 했을 때, 반드시 그와 같은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불편함이나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소위 ‘어떤 일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금기(禁忌)에 관한 논문이다.

혹자는 금기를 미개한 옛날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전에 가졌던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생각이라고 폄하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금기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기에 대해 평소에는 비과학적이고 합리성이 없다고 무시하고 있다가도 막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나, 자신이 초상을 당하거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편을 참아가면서까지 금기사항을 지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금기는 단순히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일상적 사고판단과는 다른 차원의 신념체계이며 판단차원이다. 흔히 우리에게 신성성(神聖性)이 부여되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물이나 이와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일상적 판단이 무위화되는 것처럼 문화적 전통이라는 옷을 입은 금기관련 신념은 심리적으로 신성에 관여되는 신념이나 판단체계처럼 종교적 신성심리가 동일한 기제로 작용한다. 사람들이

종교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이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논리적인 이유가 없음으로 인해 종교는 더욱 신성시화 될 수 있다. 금기도 마찬가지이다. 금기에 의한 금지는 이유불문의 금지이며, 그 기원도 불분명하다(Freud, 1912-13/1995). 따라서 금기는 감히 범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금기는 그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것에 따른다는 성격이 강하다. 전통은 단순히 지나간 사실을 제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역사와는 달리 ‘당연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는, 옛날부터 따라왔던 전통적인 관습을 어기는 것은 ‘부도덕한 사람이 하는 짓’ 등과 같은 감정-자아 고관여적 믿음체계를 그 기저에 깔고 있으며, 따라서 전통을 어기는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 물론 대부분의 문화적 전통은 그러한 전통이 왜 생겼으며, 왜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화-맥락적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특정한 활동이나 대상이 전통이라는 심리적 틀 속에 들어오면 그러한 전통이 생겨난 이유나 배경과는 상관없이 전통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중요한 일이나 삶으로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심지어는 그러한 전통이 생겨난 이유나 정당성이 더 이상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된 상황에 있어서도 그러한 전통에 대한 인간의 추종은 그대로 지속된다. 이것을 전통의 기능적 자동화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기에서도 적용되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한번 형성된 금기는 세대를 거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전달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금기를 통해 과거 혹은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비정상적인 신념이나 믿음이 어디서 기인

했는가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선후 인과론적이지는 않지만 납득할 만한 추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낭곳의 제주(祭主)가 제수(祭需)를 마련하고자 시장에 갈 때는 반드시 첫 새벽에 첫 장을 보아야 하되, 흥정을 하지말고 물건을 사야 한다. 이때의 금기는 흥정이다. 즉 상행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흥정이 서낭곳을 망치는 부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선비를 으뜸으로 치고 상인을 가장 하류로 여긴다든지, 상술(商術)이라 하여 상업에 비하하고 천하게 여기는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김열규, 1978).

단일(單一)하지 못한 것, 순연(純然)하지 못한 것 또한 부정으로 간주되고 금기의 대상이 된다. 서낭곳의 제수로 쓰일 돼지의 경우, 흰 반점이나 잡색의 얼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잡색의 돼지는 제수로 쓰지 말아야 한다. 다색(多色)이 불순감을 자극한다는 사실 때문에 부정으로 간주된 것이다. 불구(不具)나 이형(異形) 그리고 상처(傷處)등이 부정으로 다루어져 기피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때는 비정상감이 부정감과 연결되어 있다(김열규, 1978).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불구자(不具者)나 신체장애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한 가지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금기에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애 낳고 사흘 안에 동냥 주지 않는다’, ‘밥 찌꺼기를 남기면 복 나간다’ 등의 금기는 식량 보호의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김선풍, 1994).

이와 같이 금기에는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사상, 믿음 등이 용해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기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기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불문법으로 사회 도덕률의 일부를 차지(김선풍, 1994)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하한선을 규정해주는 ‘최소도덕(minimal morality)’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기를 어겼을 때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책감을 경험하며, 이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유교의 경전이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금기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될 최소한의 규범과 도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 필자들은 금기가 사람들의 의식과 일상적인 행동을 강제하는 규범이며 동시에 심층적인 한국인의 심리를 이루는 한 축으로써 중요한 문화적인 현상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고는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양식을 가지고 일상의 대화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지는 금기어(禁忌語)¹⁾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심층심리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금기의 개념 및 분류

금기는 인류 모두가 보편적으로 소유한 문화 현상으로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사회적, 종교적 사정에 따라 각기 그 원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세계 도처에 이와 유사한 습속(習俗)이 남아 있다(문효근, 1962). 우선 금기(禁忌)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금기란 ‘금(禁)한다’는 의미와 ‘꺼린다(忌)’는 의미가 합성된 말이다. 금기에는 일반적으로 신성(神聖)한 것과 부정(不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복합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신성한 것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를 묵하는 양면성의 종합적 의미가 금기이다(김선풍, 1994; 심재기, 1978; 장법성, 1998). 전자는 왕이나 제신(祭神), 영혼 등과 관련

1) 일정한 사물에 대한 접근, 접촉의 금기나 그 행위를 기피하도록 하는 언어 진술.

된 것이며, 후자의 예로는 월경, 출산, 사망, 사체(死體)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북악 편집실, 1978).

또한 금기에는 금지되어 있는 물건이나 행위는 어떤 하나의 의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관념과, 규칙을 범한 경우의 제재는 초인간적, 초자연적이라는 관념이 복합되어 있다. 대개 이러한 제재는 금기를 범한 행위 가운데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즉, 금기를 범한다면 그 결과 논리적, 필연적으로 어떤 재앙이 이를 범한 사람에게 내리 덮친다는 것이다(김선풍, 1994; 이관일, 1979)).

이러한 금기에 대한 학술적 조명은 민속학이나 인류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의 탐험가 쿡 선장(Captain J. Cook)이 맨 처음 'taboo'라는 금기의 뜻을 지닌 폴리네시아의 토속어를 서구 사회에 소개한 이후 19세기 말엽부터 Smith, Frazer, 그리고 Mead 등 많은 연구자들에게 학술적으로 주목되기 시작하여 그 연구 업적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김동욱, 1988).

심리학에서는 Wundt와 Freud가 금기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Wundt는 금기 개념의 근원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하면서 심리학 분야에서 최초로 금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Wundt는 금기를 인간의 가장 오래된 불문법으로 보았으며, 금기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금기를 '제례 관념들(cult idea)과 연관된 특정한 대상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풍습 일체', 혹은 '어떤 사물을 접촉하거나 소유하려는 것에 대한 금지 및 엄금된 말을 입에 담는 것에 대한 금지 일체'로 보았다(Wundt, 1906). 한편 Freud는 원시인의 금기와 현대인의 노이로제 증상을 결부시켰다(Freud, 1912-13/1995). 그는 특히 근친과의 결혼에 대한 거의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금

기 즉 근친상간 금기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문학이나 민속학, 종교학, 식품학(김선풍, 1994; 김열규, 1978; 서혜경, 1981; 심재기, 1978; 정진홍, 1978; 조희웅, 1978) 등에서 부분적으로 금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국내의 심리학에서는 금기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금기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금기를 분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애하였다. Frazer(1969)는 금기를 금기행위(tabooed act), 금기인물(tabooed person), 금기물건(tabooed thing), 금기언어(tabooed word)로 나누었다. 이에 반해 Toy는 금기를 생명에 관한 것, 죽음(死)에 관한 것, 여성 및 성에 관한 것, 위인 등에 관한 것, 생산에 관한 것, 중요한 사회적 사건에 관한 것, 그리고 달(月)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였다(북악 편집실, 1978). Thompson(1946)은 '설화 모티프 색인(Motif Index)'에서 금기를 1000여 항목(C. 0 ~ C. 980)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전인류 공통적인 모티프로, 視察禁忌(looking tabu), 發話禁忌(speaking tabu), 聽取禁忌(hearing tabu), 觸手禁忌(touching tabu), 食飲禁忌(eating and drinking tabu), 그리고 食物禁忌(food tabu)로 나누었다. 심리학분야에서 Wundt는 호주인들의 금기를 세 종류로 분류한 바, 동물에 대한 금기, 사람에게 대한 금기,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금기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분류하였다(Wundt, 1906).

한편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들을 보면, 김태곤(1988)은 금기를 제의(祭儀)의 금기, 통과의례의 금기, 일상 속의 금기, 그리고 설화 속의 금기로 나누었으며, 장덕순(1981)과 최래옥(1981)은 금기 설화에 대한 분류를 그들 나름대로 시도하는 등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분류가 있으나, 공통적인 분류체계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일상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금기어(禁忌語)를 중심으로 한 본 고에서는 내용적인 면에서 유사한 것들을 유목화하는 방식을 통해 금기어를 분류하였다.

이제까지 금기가 왜 중요한 문화적인 현상이 될 수 있으며, 금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금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금기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심층심리를 탐색해 보기로 하자.

방 법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채택한 자료는 김성배(1975)가 전국을 돌며 수집한 금기어(禁忌語)들 중에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금기어만을 분석하였다²⁾.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2차에 걸쳐 의미나 내용면에서 유사한 것들을 유목화시키고, 좀더 큰 집단화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대학원생 2명과 본 연구자들 중 1인이 내용분석 작업에 참여하였다. 작업의 방식은 3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한 내용분석을 상호 비교하여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협의를 통해 '내용에 따른' 다발화를 조정하였다.

2) 김성배는 그의 저서에서 각각의 금기어가 사용되어지는 지방을 표시하여 놓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그 중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금기어(625개)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1차 분류 과정에서의 연구자간에 일치도는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가 .96(724/754), 금기어의 후반 주절부 결과를 분석의 경우 .93(581/625)이었다.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는 유목화 과정에서 다른 유목과 내용상 중복되는 것은 그대로 각 유목에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결 과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금기어 전체에서 내용면에서 유사한 것들끼리 유목화하여 정리한 부분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던 인간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별도로 정리한 부분, 그리고 금기어의 후반 주절부에 해당하는 결과를 별도로 분리하여 유목화하여 정리한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

분석 1. 전체 금기어 분석

금기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인간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인간생활과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에는 의식주, 가재도구, 통과 의례, 시간, 신체부위, 질병, 대인관계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이 '꿈'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내용들은 나머지 범주들인 인간생활, 동·식물, 자연 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인간생활과 관련된 것(97개)이었으며, 그 다음이 자연(23개)과 동·식물(16개)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동·식물'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동물(81개)과 관련된 금기가 식물(32개)과 관련된 금기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

표 1. 전체 금기어 분석

범 주	빈도(백분율)
인간생활	754(70.3%)
꿈	136(12.7%)
동·식물	113(10.5%)
자연	70(6.5%)

물과 관련된 금기들 대부분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개, 고양이, 닭, 오리)들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밖에 날짐승(까마귀, 까지)이나 곤충(거미, 가재) 등의 순이었다. 또한 식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금기는 채소류나 과일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Wundt에 의하면 동물과 관련된 금기는 주로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먹는 것에 대한 금지로 토테미즘의 핵심을 이룬다(Wundt, 1906).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기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토테미즘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실제적인 일상의 삶과 관련된 동물(가축)이 주종을 이루며, 이는 식물(채소, 과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끝으로 자연과 관련된 금기어에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금기(32개), 물이나 불과 관련된 금기(23개), 그리고 토지, 땅과 관련된 금기(15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금기어의 대부분은 인간생활과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꿈이나 동·식물,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금기어들 역시 대부분이 사람들의 삶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가진 것들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분석 2.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 분석

표 2는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에 대해 내

표 2.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 분석

범주 및 유형	빈도(백분율)
의식주(衣食住)	174(23.1%)
의복류	34(4.5%)
음식 및 식사	107(14.2%)
집	33(4.4%)
가재도구, 생활용품	121(16.0%)
가재도구, 생활용품	121(16.0%)
통과의례	102(13.5%)
임신 및 출산	20(2.7%)
결혼	16(2.1%)
장례 및 죽음	62(8.2%)
제사	4(0.5%)
시간	67(8.9%)
하루동안의 시(時)	42(5.6%)
세시(歲時)	25(3.3%)
신체부위	62(8.2%)
신체부위	62(8.2%)
질병(疾病)	52(6.9%)
질병(疾病)	52(6.9%)
대인관계	42(5.6%)
대인관계	42(5.6%)
남녀	41(5.4%)
남녀	41(5.4%)
인물(人物)	32(4.2%)
어린이	13(1.7%)
어머니	10(1.3%)
손님	9(1.2%)
기타	61(8.1%)
생업(生業)	21(2.8%)
자세	20(2.7%)
취침	16(2.1%)
산신(山神)	4(0.5%)
총 계	754(100%)

용면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의 내용을 빈도순으로 보면, 의식주(衣食住), 가재도구, 통과례, 시간, 신체부위, 질병, 대인관계, 남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의식주와 관련된 금기어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음식과 식사(食)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으며(107개), 그 다음으로 의복류(衣: 34개)와 집(住: 33개)과 관련된 사항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빈도로 보면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의 순으로 그 중요도를 매길 수 있다.

금기어 빈도의 많고 적음만을 가지고 단순히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관련된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현상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에게는 입고, 자는 문제보다는 당장에 먹는 문제가 가장 절박한 생활의 요구였으며, 그것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볼 수 있다. 음식과 식사(食)에 관련된 금기 107개를 다시 분류해 보면, 식사하는 자세(25개), 금기할 음식(17개), 특정한 날이나 상황에서 삼가야 할 음식(15개), 상차림새(10개), 기타 음식관련 금기(40개) 등이었다. 다음은 의식주와 관련한 대표적인 금기어이다.

옷을 뒤집어 입으면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옷을 짓다가 해를 묵히면 해롭다.
 수의 만들 때 실 매듭 짓지 않는다.
 떨어진 옷을 입고 꿰매면 누명쓴다.

국물을 먹다가 남기면 복 나간다.
 상 모서리에 앉아 밥을 먹으면 미움받는다.
 무를 보약 먹을 때 먹으면 머리가 희어진다.
 날 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곡식을 가지고 장난하면 꿈보 색시 얻는다.

부엌을 파면 집안 망한다.
 부뚜막에 앉지 않는다.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 없다.
 대들보가 부러지면 집안 망한다.

의식주와 관련된 금기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가재도구 및 생활용품’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가지(14개), 그릇(13개), 실과 바늘(12개), 다듬이(10개), 밥상(9개), 칼(9개), 거울(9개), 수저(8개), 베개(7개), 가위(5개) 등이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연장, 무기 같은 사유물들은 금기가 된다(Freud, 1912-13/1995). 그러나 기실 이러한 가재도구나 생활용품의 대부분은 의식주와 밀접히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두 가지 범주는 모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바자지를 머리에 쓰면 부모에게 해롭다.
 그릇을 깨뜨리면 집안에 근심이 생긴다.
 국그릇을 왼쪽에 놓고 식사하면 나쁘다.
 밥그릇에 수저 꽂아 놓으면 불길하다.
 바늘을 벽에 꽂아 놓으면 남편이 앓는다.
 빈 가위질하면 재수 없다.
 거울을 밤에 보면 재수 없다.
 베개를 세워 놓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 다음으로 많은 금기어는 통과례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례 및 죽음과 관련된 금기어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신 및 출산, 결혼, 제사와 관련된 것들 순이었다. 앞서 금기의 개념과 관련하여 금기에는 신성(神聖)과 부정(不淨)의 두 관념이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언급한 바, 통과례는 이러

한 신성과 부정이 공존해 있다. 즉 제사에는 죽은 영혼과 관련한 신성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신과 출산, 장례와 죽음에는 부정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통과 의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금기어는 제시된 결과에서 보면 신성성과 관련된 것보다는 부정성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장 빈도가 많은 장례 및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 죽음과 관련된 금기어(40개)가 장례에 관련된 것(22개)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한국 민속의 현장에서 부정이 금기의 대상이 되는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죽음과 여성이 있다(김영규, 1978). 이는 그만큼 죽음은 부정과 관련된 금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금기어는 주로 산모보다는 태어나 영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전통적인 금기 식품도 임신기에 가장 그 종류가 많다(모수미, 1966).

금기의 발달은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윤가현, 1998), 이러한 문화의 출발은 바로 통과 의례와 관련된다. 통과 의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과 의례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며, 이에 대한 금기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신 중에 닭 잡아먹지 않는다.
어린애 낳고 사흘 안에 동냥 주지 않는다.
산후 삼칠일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진다.
어린애 낳고 초상집에 가면 해롭다.

장가갈 때 신랑이 웃으면 첫딸을 낳는다.
결혼식 날 눈물 흘리면 후에 잘 살지 못한다.
결혼식 날 그릇 깨면 재수 없다.

부모 초상 때에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상여 나갈 때 길을 건너가면 불길하다.
어린애가 실없이 땅을 파면 부모가 죽는다.
뫼자리를 덮고 자면 일찍 죽는다.
큰 나무를 베는 사람은 쉬 죽는다.

제삿날 바느질하면 조상의 영혼이 오지 않는다.
제삿날 빨랫줄을 매면 귀신이 오다 돌아간다.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나쁘다.

네 번째로 많이 언급된 금기어는 시간(時間)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 범주는 다시 하루 동안의 시(時)와 관련된 것과 일년 동안의 세시(歲時)와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하루 동안의 시간과 관련된 범주에서는 밤(夜)(26개)과 관련된 것이 주종을 이루며, 그 다음이 아침(9개)과 관련된 것이었다. 일년 동안의 세시와 관련해서는 정월(13개)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시간과 관련해서 하루 중에는 밤과 아침이 중요한 때며, 일년 중에는 정초가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시간과 관련된 것이 네 번째로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보여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비록 ‘코리아 타임’이라 하여 한국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제때 시간을 지키는 측면보다는 언제 어떤 일을 하느냐와 관련된 시의적절성(時宜適切性)의 문제가 더 중요한 관심사였었던 것 같다. 금기어의 내용을 살펴보다도, ‘약속시간을 지켜라’고 하는 내용은 없다. 그 대신 ‘아침에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되며’, ‘밤에는 무슨 일을 하면 좋지 않다’는 식의 어떤 시기에는 어떤 일이 적합하지 않으니, 그러한 일은 삼가라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아침에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그 날 재수 없다.
아침에 어깨 짚으면 재수 없다.
아침 일찍이 장님을 보면 그 날 재수가 없다.
밤에 빨래하면 가난해진다.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
밤에 화장하면 불길하다.

정초에 구두를 잃으면 그 해엔 재수가 없다.
정월에 아이 난 곳에 가면 나쁘다.
설날 돈 빌리면 복 나간다.
윤달에 이사하면 해롭다.

다섯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범주는 인간의 신체부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신체부위에 관련해서는 머리카락(18개)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손(11개), 치아(8개), 그리고 발(6개)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관상과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것(7개) 등이 있었다. Frazer (1969)의 금기분류에 의하면 금기시 하는 물건에는 날카로운 물건, 피, 머리, 머리카락, 손톱, 타액, 음식, 반지 등이 있는데 그것들의 주종은 신체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국 공통적인 금기어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신체부위와 관련된 금기어에서 치아와 관상 등과 관련된 것이 특징적으로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 신체는 중요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머리와 손과 발, 그리고 치아 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면 나쁘다.
바가지로 머리에 쓰면 부스럼 난다.
손을 까붙면 복이 나간다.
손으로 턱을 괴면 부모와 이별한다.
손톱, 발톱을 깎아서 불어넣으면 해롭다.
자다가 이를 갈면 신수가 사납다.

귀가 작으면 명이 짧다.
눈이 찢어진 사람은 성미가 나쁘다

신체부위와 관련된 금기어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질병(疾病)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무병장수를 바라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바람이 금기어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질병과 관련된 금기어도 앞에서 언급한 신체부위와 관련된 금기어와 더불어 크게는 ‘신체 및 몸’과 관련된 금기어라 통칭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과 건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돌 베개를 베고 자면 입이 비뚤어진다.
베개를 깔고 앉으면 치질 걸린다.
가지를 날로 먹으면 이가 삭는다.
배 속을 먹으면 귀먹는다.
꿈에 땅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일곱 번째로 많은 금기어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금기어들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타인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은 타인에게는 특별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므로 조심하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25개), 그 다음이 인과응보의 형태로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내용(9개), 그리고 어떠한 행동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발생한다는 내용(8개)이었다. 따라서 일곱 번째 대인관계와 관련된 금기어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측면이 부각된다.

남의 어깨를 짚으면 재수 없다.
꿈에 악한 사람과 같이 말하면 구설수가 있다.

남에게 침을 뱉으면 버짐 난다.
남을 업신여기면 기름가마에 들어간다.
남의 흉을 보면 제 흉이 된다.

마마할 때 못질하면 마마하는 사람이 죽는다.
칼을 사람에게 겨누면 살간다.

여덟 번째로 많은 내용을 차지한 것은 남녀와 관련된 것으로, 남성과 관련된 것(11개)보다는 여성과 관련된 금기어(28개)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여성과 관련된 금기는 전세계에 걸쳐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Frazer(1969)나 Toy(복악 편집실, 1978)의 금기분류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항목이 있다. 여성이 금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월경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그것이 부정(不淨)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여성은 죽음과 더불어 부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금기의 대상이었다(김열규, 1978). 구체적으로 성별과 관련된 금기어의 내용을 보면, 여성은 주로 채수 없는 일이나 재앙을 몰고 오는 원인으로 간주되는 반면, 남성은 귀한 존재로서 하찮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새벽에 여자가 오면 채수 없다.
여자가 날뛰면 집안이 망한다.
정월달에 여자가 와서 울면 채수 없다.
소 새끼 난 뒤에 여자가 보면 나쁘다.
참외밭에 여자가 들어가면 참외가 곱다.
칠월칠석날 딸이 논밭에 나가면 흉년이 든다.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이 떨어진다.
남자가 누룽지를 먹으면 채수 없다.
남자가 빨랫줄을 매면 채수 없다.
남자가 바가지에 밥을 담아 먹으면 가난해진다.

그 다음으로 많은 금기어는 특정 인물(人物)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어린아이, 어머니, 그리고 손님에 대한 것들이다. 우선 어린아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금기어는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먹인다거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병이 난다거나 해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기어들은 연약한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어머니와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내용이다. 이는 어머니와 관련된 금기어 역시 어린아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손님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대개의 경우 손님은 부정(不淨)과 연관된다. 서낭굿이 베풀어질 때 타관(他關)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까닭 하나 때문에 곧잘 부정시된다. 출산을 한 집에서는 남의 집 식구는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일단은 부정시한다. 또한 자기가 시는 동네를 벗어나 다른 동네를 다녀오는 것은 타향의 부정에 감염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서낭굿에서의 타관사람, 출산한 집의 다른 집 식구, 다른 지역으로의 나들이가 부정으로 간주되고 위협시되는 데에는 모르는 것, 미지의 것, 남의 것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김열규, 1978).

아직 말 못하는 어린애에게 계란 주면 해롭다.
갓난아기를 무겁다고 하면 살이 빠진다.
갓난아기의 입을 맞추면 병이 생긴다.
아이가 굶한 집 떡을 먹으면 귀신이 붙는다.

두 손을 목에 베고 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머리를 풀고 다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베개를 세워 놓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날 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손 있는 날 이사하면 나쁘다.

손 있는 날 결혼식하면 불길하다.

손 있는 날 의결이 사 놓으면 안 된다.

이밖에 많이 언급된 금기어로는 생업과 관련된 것, 몸의 자세와 관련된 것, 취침과 관련된 것, 그리고 산신(山神)과 관련된 금기어 등이 있었다. 생업과 관련된 금기어는 곡식이나 가축을 기르는 일과 같이 농사와 관련된 것(19개)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밖에 상업과 관련된 것(2개)이 있었다. 몸의 자세와 관련한 금기어는 대부분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내용이었으며, 특히 잠자는 자세(11개)와 관련된 사항이 많았다. 취침과 관련된 금기어 역시 대부분이 잠을 자는 자세와 관련된 것(13개)이었다. 마지막으로 산신과 관련된 금기어는 주로 성황당(3개)에 관한 것이었다.

분석 3. 금기어 후반 주절부 결과 분석

금기어는 문장의 구조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금기어는 ‘A가 B하면, C가 D한다’와 같은 조건절(A가 B하면)과 그것의 결과에 해당하는 주절(C가 D한다)의 복문을 기본 문형으로 하여, 국어 문장의 일반적인 특징인 주어생략에 의해 ‘B하면 D한다’와 같은 축약형의 형태를 띤다. 표 3은 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C가 D한다’ 혹은 ‘D한다’)에 해당하는 주절부만을 유목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금기어에는 인간의 생활을 보다 안락하게 누리하고자 하는 현실적 욕구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일정한 행동의 금기로 성취하려는 것이다(심재기, 1978). 이때 금기어의 후반 주절부 결과는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무엇을 원(願)

했었으며 어떻게 살기를 바랐는가하는 이상과 염원의 집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금기어 후반 주절부 결과는 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 이는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거나,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러한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기를 지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기어의 후반 주절부 결과를 분석

해 보면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생각하여 왔던 소망이나 염원, 가치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원했던 이상적인 생활 혹은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내용분석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

표 3. 금기어 후반 주절부 결과 분석

범주 및 유형	빈도(백분율)
일반적 결과	218(34.9%)
재수없다	56(9.0%)
나쁘다	39(6.2%)
해롭다	39(6.2%)
불길하다	34(5.4%)
흉하다	27(4.3%)
근심이 생긴다	9(1.4%)
부정탄다	8(1.3%)
팔자가 세다	6(1.0%)
구체적 결과	165(26.4%)
병든다	57(9.1%)
죽는다	45(7.2%)
가난해진다	21(3.4%)
복 나간다	20(3.2%)
이별한다	11(1.8%)
집안 망한다	11(1.8%)
기타	242(38.7%)
총 계	625(100%)

인 결과와 구체적인 결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일반적인 결과’라고 명명해 놓은 범주의 유형을 보면, ‘재수없다’, ‘나쁘다’, ‘해롭다’, ‘불길하다’, ‘흉하다’, ‘근심이 생긴다’ 등과 같이 금기를 어겼을 때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결과의 제시보다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병든다’, ‘죽는다’, ‘가난해진다’, ‘복(福) 나간다’, ‘이별한다’, ‘집안 망한다’와 같이 어떠한 금기를 어긴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병든다’와 ‘죽는다’로 이는 우리 민족에게 ‘무병장수(無病長壽)’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바램이었음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가난해진다’인데 이는 ‘등 따뜻하고 배부른 풍요로운 삶(富)’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복 나간다’인데 이는 일반적인 결과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재수없다’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명관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재수(財數)’, ‘복(福)’, ‘팔자(八字)’라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는 대개가 개인 스스로 개척해서 구하고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것,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으로의 성격이 짙으며,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순리(順理)에 따르고 하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점이다(김재은, 1987; 이규태, 1977).

끝으로 구체적인 결과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차지한 것은 ‘이별한다’와 ‘집안 망한다’였다. 특히 ‘이별한다’에서 그 대상은 주로 부부(夫婦)와 부모-자식간이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결

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했던 ‘죽는다’에서 ‘부모가 죽는다(주로 어머니)’(10개)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즉 ‘이별한다’와 ‘죽는다’에서 그 이별과 죽음의 주 대상은 가족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결과에서 ‘이별한다’와 ‘집안 망한다’는 모두 가족의 중요성(김태길, 1986; 윤태림, 1984; 최재석, 1994)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인생에서 추구하는 행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오복(五福)이 있었다. 오복이란 오래 살고(壽), 풍요롭게 살며(富), 건강하며(康寧), 남에게 덕을 베풀고(攸好德), 자기의 천수대로 사는 것(考終命)을 이르는 말로 상서(尙書)의 홍범(洪範³⁾)에 먼저 나왔다. 그 뒤 다른 경전이나 문헌에도 인생에서 온갖 복을 갖추었다고 말할 때 이 오복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문헌으로 통속편(通俗編⁴)에 나오는 오복은 상서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수(壽), 부(富), 귀(貴), 강녕(康寧), 자손중다(子孫衆多)로 되어 있어 두 가지가 다른데,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오복은 오히려 이 통속편에서 말하는 오복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남에게 덕을 베푼다는 유효덕(攸好德)보다는 귀(貴)하고 높은 신분을 얻기를 바랐으며, 자기의 천수대로 사는 고종명(考終命)보다는 자손 많은 것을 원하였다(과스칼 세계대백과사전, 1999). 따라서 이러한 오복사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과거 사람들이 인생에서 구하고자 원했던 다섯 가지 복(五福)과 금기의 후반 주절부의 결과를 분석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일치점이 있다.

3)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書經)의 1편.

4) 청(淸)나라의 학자 적호(翟灝)가 지은 저서.

논 의

본고는 금기가 일상의 생활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화적인 현상이며, 가장 심층적인 한국인의 심리를 이루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는 판단하에,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양식을 가진 금기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심층심리를 파악해보았다.

Wundt는 인간의 마음이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는 언어, 관습, 신화 및 기타 역사적 산물과 같은 역사문화적 산물과 유산을 분석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그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 인간의 심리가 배어있음을 주장하고, 특히 이러한 산물 및 유산 중에서도 언어의 분석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최상진, 유승엽, 1994). 이러한 Wundt의 입장은 Bruner(1990), Gergen(1973), Harré와 Secord(1972), Harré(1980), 그리고 Vygotsky(1978) 등의 언어 분석적 접근과 그 틀을 같이하고 있다. 언어 분석적 접근에서는 언어가 곧 사고 즉 마음이며, 언어 속의 심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이 어떠한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심리적 언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반인의 심리구성을 밝히고, 동시에 이러한 일반인의 심리가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최상진, 2000).

따라서 일상대화에서 사용하는 금기어에 대한 본 연구는 이러한 Wundt의 생각에 가장 근접한 심리학적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상진과 유승엽(1994)은 한국 속담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성격특성과 대인관을 탐색한 바 있다. 금기어 분석에 관

한 본고는 이러한 속담 분석과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는 연구로서 한국인심리학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소자료(raw data)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타 꿈이나 동·식물,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금기들 역시 사람들의 삶과 관련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하게 여긴 것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에서는 전체 금기어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던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의식주, 가재도구, 통과 의례, 시간, 신체부위, 질병, 대인관계, 남녀, 그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금기어들이었다. 이를 다시 크게 정리해 보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의식주와 가재도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임신과 출산, 결혼, 장례와 죽음,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통과 의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절차이며,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이와 관련된 것들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시간과 관련된 것, 신체부위, 질병, 대인관계, 남녀, 인물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중요한 금기의 대상이었으며,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는 대부분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의식주와 가재도구, 임신과 출산 및 장례와 죽음과 관련된 통과 의례,

몸과 건강과 관련된 신체부위와 질병, 인물에서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건강과 생명을 염려하는 금기들은 모두가 인간의 생사(生死)와 관련된 금기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 고에서 제시된 금기어들의 빈도의 많고 적음만을 가지고 단순히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관련된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현상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빈도가 많은 문항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적어도 그것이 중요한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이끌어 나갔다.

끝으로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이루고자 했던 이상과 염원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금기어의 후반 주절부를 분석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크게 일반적인 결과와 구체적인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빈도면에서는 일반적인 결과가 조금 더 많았다. 일반적인 결과에서는 금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재나 손실에 대한 설명 없이 막연한 부정적인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에서는 금기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루고자 했던 이상적인 생활 혹은 소망은 첫째, 무병장수('병든다', '죽는다'), 둘째, 풍요로운 삶('가난해진다'), 셋째, 자연과 순리(順理)에 따르며 하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삶('복 나간다', '팔자가 세다', '재수없다'), 마지막으로 화목한 가정('집안 망한다', '이별한다')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제까지 금기에 대한 연구가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왜 중요한 주제가 되며, 금기가 어

떠한 현상이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금기어 속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금기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금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잊혀져서 언젠가는 소수의 금기만이 살아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본 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1975년에 출판된 금기어를 일상의 대화 속에서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비록 금기가 줄어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금기와 관련된 신념, 금기와 관련된 정서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러한 신념과 정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금기와 관련된 신념의 한가지 변형된 형태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의 심리 속에 나타나 는 것이 바로 인고(忍苦)와 근신(謹愼)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인고의 정념(情念)은 한국인의 삶 속에 뿌리 깊이 자리잡은 하나의 보편적 개념이다. 즉 한국인들은 인고를 겪으면 그것이 어떤 보상을 수반하며(인고보상수반 심정논리: 忍苦報償隨伴 心情論理), 과실이나 잘못으로 인해 인고를 경험한 경우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어야 한다는 심정적 논리(인고과실상계 심정논리: 忍苦過失相計 心情論理)를 가지고 있다(최상진, 정태연, 2001).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가 수업을 깎지 않는다든지, 수험생이 머리를 삭발한다든지, 고 3 수험생을 둔 부모가 자식과 함께 밤을 지새거나 추운 겨울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리는 것, 혹은 옥바라지를 하는 나이든 노모가 한 겨울에도 냉방에서 지내는 그러한 행위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고통을 참으며 정성을 다하는 인고하고 근신하는 마음을 지니면 그에 비례해서 보답을 받는

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금기의 근본 바탕에도 바로 이러한 조심하고 삼가며 고통과 불편을 참아내는 인고와 근신하는 마음이 깔려있으며, 이를 통해 액을 피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과거의 금기가 오늘날 일반인들의 마음속에서 작동되는 현대적 의미의 금기를 근신하는 마음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기는 ‘당연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는 옛날부터 따라왔던 전통적인 관습을 어기는 것은 ‘부도덕한 사람이 하는 짓’ 등과 같은 감정-자아 고관여적 믿음체계를 그 기저에 깔고 있으며, 이러한 금기를 어기는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관련 금기어들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그것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타당성)와 여성 본인이 금기에 해당하는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주위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된 금기어를 인용하며 그러한 행동을 제지할 경우 그에 따를 것인지(수용성)를 살펴본 연구에서, 금기어에 대한 타당성 평정치보다 수용성 평정치가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 보였다(최상진, 양병창, 박정열, 김효창, 2002). 이는 비록 그러한 금기가 타당성은 약하다하여도 금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성 본인이 져야할 부담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에 와서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일반 생활 현장에서 금기어들은 시안에 따라 여전히 사람들의 행위를 제어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동욱 (1988). 한국민속학. 서울: 새문사.

김선풍 (1994). 한국인의 금기어와 금기담. 어문논집, 23,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회, 53-68.

김성배 (1975). 한국의 금기어·길조어. 서울: 정음사.

김열규 (1978). 금기의 사상: 부정의 금기를 중심으로. 복약, 29, 210-216.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태길 (1986).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I. 서울: 문음사.

김태곤 (1988). 각종 금기를 통해 본 한국인의 심층심리. 광장 5월호, 108-120.

동서문화 (1999).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서문화.

모수미 (1966). 한국 농촌의 식품금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 15-21.

문효근 (1962). 한국의 금기어. 인문과학, 8,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53.

복약 편집실 (1978). 금기 개관: 특집 II 금기. 복약, 29, 198-209.

서혜경 (1981). 전북지역의 금기식품에 관한 연구: 임신기를 중심으로. 기전여전문문집, 2, 153-160.

심재기 (1978). 언어와 금기: 한국 전래금기담을 중심으로. 복약, 29, 217-225.

윤가현 (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윤여송 (1989). 전남지방의 産育俗에 나타난 금기. 전남대어문논총, 10·11, 285-300.

윤태림 (1984).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현음사.

이관일 (1979). 서사문학과 금기 모티브. 새국어교육, 29, 224-235.

이규태 (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국인은 누구인가. 서울: 문리사.

장덕순 (1981).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 서울대학

- 교 출판부.
- 장범성 (1998). 중국 민속 금기의 언어적 특징. *중국학연구*, 14, 499-523.
- 정진홍 (1978). 종교와 금기. *북악*, 29, 226-232.
- 조희웅 (1978). 설화와 금기. *북악*, 29, 233-239.
- 최래옥 (1981).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서울: 일조각.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양병창, 박정열, 김효창 (2002). 여성관련 금기어(禁忌語)의 타당성 및 수용성 지각: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47-62.
- 최상진, 유승엽 (1994). 속담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심리 표상. *새국어생활*, 4(2), 63-82.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忍苦)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21-38.
-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 Bruner, J. S. (1990). *Acts of meaning*.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razer, J. G. (1969). *The golden bough: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 New York: Macmillan Paperbacks.
- Freud, S. (1995). 토렘과 타부 [*Totem and taboo. Standard Edition, 13, 1-161*]. (김종업 역). 서울: 문예마당. (원전은 1912-13에 출판)
- Gergen, K. J. (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Harré, R. & Secord, P. (1972). *The Explanation of Social Behavior*. Oxford: Basil & Blackwell.
- Harré, R. (1980). *Social Being*. Totowa, N. J.: Littlefield, Adams.
- Thompson, S. (1946). *The folk tale*. New York: The Dryden Press.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undt, W. (1906). *Völkerpsychologie II: Mythos und religion*. Leipzig: Kröner-Engelmann.

1 차원고집수 : 2003. 3. 19.
수정원고집수 : 2003. 5. 15.
최종게재결정 : 2003. 5. 22.

An Investigation of Korean's Deep Psychology Reflected in Tabooed Words

Cheong-Yeul Park

Sang Chin Choi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orean's deep psychology reflected in tabooed words. The materials of this study were 625 Korean tabooed words. Contents analysis was administered and the major categories were extracted. The finding showed that human life, dream, animal/plant, and nature were the main theme of taboo. Especially human life related tabooed words were the most frequent. More specifically, the tabooed words related to human life were mainly about clothes/food/habitation, household effects, rite of passage, time, body, disease, human relationship, sex, and person. The tabooed words related to clothes/food/habitation and rite of passage were found more frequently than any others. In addition, contents analysis was administered on the consequences of breaking the taboo. Finally, all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Korean culture.

Key Words : tabooed words, contents analysis, Korean, deep psychology